



❖ 영적 독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마태 16,24-28 ; 마르 8,34-9,1)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 묵상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복음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길인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 역설적인 신앙의 진리는 한국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순교’는 신앙으로 인해 맞게 되는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해 그들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로부터 받은 신앙과 무한한 사랑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우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의 삶은 온전히 변화했으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박해자들 때문에 죽음 앞에 선 그들은 이렇게 발견한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께 대한 신앙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린 그들은 이미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이처럼 삶과 죽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로부터 전해 받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삶에 눈이 가리어 하느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순교자들은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랑과 신앙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신앙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뒤를 이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에 초대되었습니다. 순교자들로부터 이어받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 성체조배

❖ 시작성가 (회의실)

❖ 시작기도(길잡이 14 쪽)

❖ 새로오신분 / 특별 참석자 소개 및 환영

❖ 행사 토의 / 각 부서 공지 사항

- 남성 10 차 주말피정(9/13(목)-16(일)), Holy Redeemer Center(Oakland),
- 환영식: 9/13(목) 오후 5:00 까지 피정장소 도착
- **양팔기도 : 9/15(토) 오후 1:30 분까지 피정장소 도착**
- [마나니따/미사 : 9/16\(일\) 오전 4:00 까지 피정장소 도착](#)
- [체험발표: 9/16\(일\) 오후 3:50 피정장소](#)

❖ 영적 지도: 지도 신부님

❖ 마침 기도 (길잡이 15 쪽)

❖ 마침 성가

❖ 친교 시간

## 9월 전례.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성 바울로 정하상과 동료순교자 대축일(9/20/2012)

한국에는 18세기 말경에 처음으로 몇몇 평신도들의 노력으로 그리스도 신앙이 들어왔다. 1784년 북경에서 영세한 첫 한국인이 귀국하기 전에 이미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앙을 실천하였으니 이는 교회사에 전무 후무한 일이다. 초기부터 신자들은 모진 박해를 겪어야 했고 박해는 100년 이상 계속되어 만 명 이상의 순교자를 냈다. 초기 50년간에는 중국인 사제 두 분의 짧은 사목 활동이 있었을 뿐 1836년에 프랑스에서 선교사들이 몰래 입국할 때까지는 사목자 없이 평신도들만이 용감하고 열심한 신자 공동체를 지도하고 길러 냈었다.

이 공동체 속에서 1839년, 1846년, 1866년 박해 때 순교한 103명이 성인 반열에 들게 되었다. 그들 중 열심한 사목자였던 최초의 사제 안드레아 김대건과 훌륭한 평신도 바울로 정하상이 대표적 인물이다.

###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의 편지에서

(제 25 신의 발췌, 김대건의 서한, 이원순, 허인 편저, 1975년, 정음사)

이런 군난 때에는 주의 시험을 받아 세속과 마귀를 쳐 덕공을 크게 세울 때다.

교우들 보아라. 우리 벗아,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천주 무시지시로부터 천지 만물을 배설(配設)하시고, 그 중에 우리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위자와 그 뜻을 생각할지어다.

온갖 세상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 같은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난 보람이 없고, 있어 쓸데없고, 비록 주은으로 세상에 나고 주은(主恩)으로 영세 입교하여 주의 제자 되니, 이름이 또한 귀하거니와 실이 없으면 이름이 무엇에 쓰며, 세상에 나 입교한 효험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배주 배은하니, 주의 은혜만 입고 주께 득죄하면 아니 남만 어찌 같으리요.

씨를 심는 농부를 보건대, 때를 맞추어 밭을 갈고 거름을 넣고 더위에 신고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씨를 가꾸어, 밭 거둘 때에 이르러 곡식이 잘되고 엷글면, 마음에 땀낸 수고를 잊고 오히려 즐기며 춤추며 흠복할 것이요, 곡식이 엷글지 아니하고 밭 거둘 때에 빈 대와 껌질만 있으면, 주인이 땀낸 수고를 생각하고 오히려 그 밭에 거름 내고 들인 공부로써 그 밭을 박대하나니, 이같이 주 땅을 밭을 삼으시고 우리 사람으로 벼를 삼아, 은총으로 거름을 삼으시고 강생 구속하여 피로 우리를 물 주사, 자라고 엷글도록 하여 계시니, 심판 날 거두기에 이르러 은혜를 받아 엷근자 되었으면 주의 의지로 천국을 누릴 것이요. 만일 엷글지 못하였으면 주의 의지로서 원수가 되어 영원히 마땅한 벌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온 형제들아, 알지어다. 우리 주 예수 세상에 내려, 친히 무수한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운 데로조차 성교회를 세우시고 고난 중에 자라게 하신지라. 그러나 세상 풍속이 아무리 치고 싸우나 능히 이기지 못할지니, 예수 승천 후 종도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성교 두루 무수 간난 중에 자라니. 이제 우리 조선에 성교 들어온 지 5,60년에 여러 번 군난으로 교우들이 이제까지 이르고 또 오늘날 군난이 치성하여 여러 교우와 나까지 잡히고 아울러 너희들까지 환난 중을 당하니, 우리 한 몸이 되어 애통지심이 없으며, 육정에 차마 이별하기 어려움이 없으랴.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되, 작은 털끝이라도 주 돌아보신다 하고 모르심이 없어 돌보신다 하셨으니, 어찌 이렇다 할 군난이 주명 아니면 주상 주벌(主賞主罰) 아니랴.

주의 성의를 따라오며, 온갖 마음으로 천주 예수의 대장의 편을 들어, 이미 항복받은 세속 마귀를 칠지어다. 이런 황황한 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다하여, 마치 용맹한 군사가 병기를 갖추고 전장에 있음같이 하여 싸워 이길지어다.

부디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돕고 아울러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환난을 건기까지 기다리라. 또 무슨 일이 있을 지라도, 부디 삼가고 극진히 조심하여 위주 광영하고 조심을 배로 더하고 더하여라.

여기 있는 자 20인은 아직 주은으로 잘 지내니 설혹 죽은 후라도 너희가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부디 잊지를 말라. 할 말이 무궁한들 어찌 지필로 다하리, 그친다.

우리는 미구에 전장에 나아갈 터이니 부디 착실히 닦아, 천국에 가 만나자. 마음으로 사랑하여 잊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너희 이런 난시를 당하여 부디 마음을 허실히 먹지 말고 주야로 주은을 빌어, 삼구를 대적하고 군난을 참아 받아, 위주 광영하고 여등(汝等)의 영혼 대사를 경영하라.

이런 군난 때는 주의 시험을 받아, 세속과 마귀를 쳐 덕공을 크게 세울 때니, 부디 환난에 놀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사주 구령사(事主救靈事)에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지나간 성인 성녀의 자취를 만만 수치하여, 성교회 영광을 더고 천주의 착실한 군사와 의자됨을 증거하고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의 공련하실 때를 기다리라.

할 말이 무수하되, 거처가 타당치 못한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입으로 너희 입에 대어 사랑을 친구하노라.

**성 바오로 정하상의 '상재상서'에서 (정하상의 상재상서에서, 김남수 주교 편역)**

종교도 어디서 왔거나 진정 거룩한 종교라면 어찌 이 나라 저 나라의 경계가 있겠습니까

천주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내려 주시고, 당신의 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을 만드시어 우리를 덮어 주시고 땅을 만드시어 그 위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어 우리를 비추시고 초목과 금수와 금은동철을 우리가 향유하고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나 장성할 때까지 가지가지 은혜가 이와 같이 한이 없으니, 인간의 마땅한 본분은 과연 어떠한 하겠습니까? 만일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을 밟고 살면서 먹고 입기만 한다면 인류를 내신 분의 은덕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집을 짓고 살림을 차려 아들에게 주어 쓰게 하였는데도 아들이 그 집에 살며 그 살림을 사용하면서도 제가 잘난 체하고, 부모를 섬기며 그 은덕에 보답할 도리와 근본을 모른다면 어찌 효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티끌에 이르기까지 모두 천주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를 내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굳이 죽은 후에 받을 상을 말하지 않더라도 당장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극진하여 그분을 받들어 섬긴들 어찌 만 분의 일이나 보답한다 하겠습니까? 천주를 섬기는 일이 어려운 것도 아니려니와 은밀한 말을 들추어내거나 괴상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스스로의 잘못을 고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천주의 계명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길다 해도 백 년을 넘기지 못하는데 자기 이익만을 탐하여 얻지 못할 것을 얻으려 애쓰고 이미 얻은 것을 잃지 않으려 걱정하는 사이에 어느덧 늙고 만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몸이 한 번 죽으면 부귀공명도 반드시 허무로 돌아가고 맙니다. 부귀공명마저 일평생 애써도 얻지 못하는 것인데 이 헛된 꿈을 깨기가 그다지 어렵단 말입니까? 세상에 있을 때에 정신이 흐려져 깨닫지 못하다가 육신이 죽은 뒤에 뉘우친다 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을 벨 도끼가 눈앞에 있고 몸을 삶을 가마솥이 제 뒤에 있어도 꺾이지 않은 사람이 대대에 적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된 종교의 증거입니다.

교리의 참되고 거짓됨이나 사리의 바르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열토당토아니한 말로써 공격하고 배척하고 있으니, 그저 외국의 종교라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금은 산지를 가리지 않고 순금이면 보배가 아니겠습니까? 종교도 어디서 왔거나 진정 거룩한 종교라면 어찌 이 나라 저 나라의 경계가 있겠습니까?

수명을 감하고 바쳐서 천주교의 참됨을 증거하고 천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몸도 장차는 죽을 목숨이오니, 감히 말해야 할 이 시각을 만나 한 번 머리를 들고 길게 외치지 못하고 슬프게도 입을 다물고 죽어 버린다면 산같이 쌓인 회한을 장차 백 대 후세에 이르기까지 폭로할 길 없기에, 옆드려 청하오니, 지금 한 번 밝은 빛으로 굽어보시고, 도리가 참된지 거짓인지, 올바른지 그릇된지 자세히 판단한 다음, 위로는 정부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일변하여 바른길로 돌아와, 금명을 풀고 체포하는 법을 거두며, 옥에 갇힌 사람들을 석방하고 온 백성이 모두 제 고향에 돌아가 제 직업을 즐기면서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천번 만번 바라고 또 바랍니다.

### ❖울뜨레아 임원진

간 사: 정상준(미카엘) 510-912-1662/부간사: 노상현(미카엘라) 408-655-9111

총 무: 박종태(프란치스코사베리오) 408-315-8924

빨랑카부: 기강은(크리스티나) 408-335-9521/채지연(마리아) 408-483-0804

음 악: 최상진(엘리사벳) 408-425-9765

교육부장: 최광섭(요한) 408-497-8526. 교육차장: 기현철(베네딕도) 650-759-9776

활동부장: 고응봉(안드레아) 408-202-4562/섭 외 부: 홍인숙(루시아) 408-655-3178